

## 『동물농장(*Animal Farm*)』 번역본 비교 — 오웰의 문체 특성과 번역전략의 관점에서

김 순 영 · 박 소 영  
(동국대-서울)

### 1. 서론

1945년 발표된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동물농장(*Animal Farm*)』은 『이솝우화』와 더불어 대표적인 우화소설의 하나로, 정치상황에 대한 풍자를 우화 형식을 빌어 풀어내고 있다. 우화는 “인간의 정형을 인간 이외의 사물들 사이에서 생기는 일로 꾸며서 어떤 도덕적 명제나 인간 행동의 원리를 예증” 하는 이야기로, 주로 “동물이 많이 등장한다든가 동물 세계가 그려진다는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화라고 하면 동물우화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김재환 1999: 11). 표면상으로 동물우화는 정형화된 동물의 성격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내용상으로는 “우의적 성격이 강한 ‘알레고리’의 문학”이다(ibid. 11). 또한 우화소설은 강한 정치적 성향, 풍자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형식면에서는 통사적 간결함과 단순한 어휘의 사용을 통해 독자

들로 하여금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정치적 풍자나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같은 복잡하고 무거운 주제를 간결한 어휘와 통사구조에 담아낸다는 것은 일면 역설적인 듯도 하지만 내용의 복잡성을 형식의 단순함으로 상쇄하고자 한 작가의 글쓰기 전략이라 볼 수도 있겠다.

오웰은 산문 *Why I Write*(1946)에서 문학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사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글을 쓰는 동기를 순전한 이기심, 미학적 열정, 역사적 충동, 정치적 목적의 네 가지로 제시하면서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각각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자신에게는 앞의 세 가지 동기가 더 우선시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도 동물농장은 그가 정치적 목적과 미학적 목적을 완벽하게 융합시켜 보여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 첫 번째 작품이라 밝히고 있다. 그는 언어의 문체란 민감한 것이라 짧게 논의하기 어렵지만 자신이 ‘지나치게 표현적으로(less picturesquely) 쓰기보다는 정확하게(more exactly) 쓰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화의 형식적 특징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동물농장』을 통해 정치적 목적과 미학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 오웰이 우화의 형식을 빌려 이야기를 풀어나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웰이 추구하고 있는 미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가 활용한 글쓰기 방식이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궁금증을 갖게 된다. 본문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될 오웰의 또 다른 글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1946)는 영어의 구사에 대한 그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동물농장』에 나타난 오웰의 문체를 정리해 보고, 그의 문체적 특성이 번역본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오웰의 문체적 특성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네 편의 번역본에서 오웰의 문체적 특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분석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조지오웰의 동물 농장을 다시 읽다』라는 단행본에서 오웰의 문체적 특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오웰의 문체를 살리기 위한 번역전략을 제시한 김옥동(2012)을 기반으로 각 번역본에서의 오웰의 문체 적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 2. 『동물농장』의 문체적 특성 및 번역전략

『동물농장』은 처음 출간된 이래 전 세계 68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김길준에 의해 처음 번역본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수십 편의 번역본이 출간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있을 만큼 널리 읽히고 있는 작품이다.

오웰은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 작품에서 권력의 타락과 변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동물들에 빗대어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1930년 스탈린주의 숙청과 1943년 테헤란 회담에 이르기까지 구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주요한 사건들을 평가하였으며, 독재정부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표현하였다. 현실적인 권력주의자로 스탈린을 상징하는 위선적 인물 나폴레옹, 이상주의자로 혁명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려다 나폴레옹에게 축출당하고 마는 트로츠키를 상징하는 스노볼, 그리고 진정한 사회주의의 실현을 믿고 그것을 위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서 등 당시 러시아 사회를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떠올리며 읽어나가면 당시 사회 분위기와 작가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1 오웰의 문체적 특성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1946)에서 오웰은 올바르지 못한 영어 어구와 단어의 사용을 지적하며, 특히 틀에 박힌 상투어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겉으로 좋게만 포장하는 글쓰기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글쓰기의 여섯 가지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런 원칙들을 잘 지킨다면 적어도 평균 이하의 글은 쓰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글쓰기의 여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자를 통해 익히 보아온 비유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짧은 단어를 쓸 수 있을 때는 결코 긴 단어를 쓰지 않는다. 셋째, 삭제해도 지장이 없는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뺀다. 넷째, 능동 구문을 쓸 수 있는데도 수동 구문으로 쓰는 경우는 결코 없도록 한다. 다섯째, 외래어나 과학 용어, 전문 용어는 그에 대응하는 일상어가 있다면 절대로 쓰지 않는다. 여섯째, 너무 이상

한 표현을 사용하느니 이상의 원칙을 깬다.

이와 같은 오웰의 글쓰기 원칙은 『동물농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화려한 미사어구나 수식어가 없는 담백하고 간결한 문체로 이 소설에 드러난 사건의 면모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런가하면, 오웰의 문체적 특성을 연구한 파울러(Fowler)는 *The language of George Orwell*(1995)에서 특히 『동물농장』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체적 특성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

그 중 첫 번째는 통사적 간결함으로, 오웰이 그의 다른 소설들에서와는 달리 이 작품에서 우화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간결한 문장구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체 문장들은 길지도 짧지도 않지만,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문장들이 짧은 구와 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구와 절이 각각 최소 정보단위를 이루어 의미를 전달하는 간결한 구성을 보여준다.

<예 1>

With the ring of light / from his lantern / dancing from side to side, //  
he lurched across the yard, // kicking off his boots / at the back door, //  
drew himself a last glass of beer / from the barrel / in the scullery, //  
and made his way up to bed, // where Mrs. Jones was already snoring.

두 번째는 능동 구문의 선호이다. 파울러가 언급하듯이, 동물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텍스트는 행위자인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 구조, 혹은,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텍스트 전체가 행위자인 주어가 단순한 행위를 하는 능동형의 문장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2>

<u>subject</u>	<u>verb</u>	<u>object or location</u>
Mr Jones	had locked	the hen-houses
	shut	the pop-holes
he	lurched	across the yard
	drew	a last glass of beer
	made his way	up to bed

other animals	began to arrive	
pigs	settled down	in the straw
hens	perched	on the indow-sills
pigeons	luttered	up to the rafters

세 번째는 복잡한 형용사의 사용을 피하고 단순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다. 파울러에 따르면 오웰은 ‘strange dream, big barn, enormous beast, raised platform’ 등과 같이 단순한 내용을 묘사하는 형용사의 사용을 선호한다. 또한, 복잡한 두 개 이상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구 역시 거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간결한 문장구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vast hairy hoofs’와 같이 두 개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복잡한 어휘구조를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 독자가 문맥을 이해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해지고 전체 텍스트 구조상 부적합하므로, 두 개 이상의 형용사 사용을 자제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옥동(2012)은 고전 작품 해설시리즈의 형식으로 펴낸 단행본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을 다시 읽다』를 통해 『동물농장』에 나타난 오웰의 문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을 번역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번역전략을 제시하였다. 김옥동에 따르면 오웰은 가능한 앵글로색슨 계통의 토착어를 구사하려고 애썼고, 정확하고 분명한 언어를 구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으며, 은유나 직유와 같은 수사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오웰은 정확한 영어, 꾸밈없는 표현, 간결한 문장의 사용을 중시하는 글쓰기를 지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오웰의 이러한 문체를 바탕으로 김옥동(2012)이 제시한 『동물농장』의 번역전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2.2 『동물농장』의 번역전략

앞서 언급하였듯이 김옥동은 오웰의 두드러진 문체 성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독특한 문체를 잘 살리기 위한 번역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인이 번역한 『동물농장』의 역자후기(2010)를 통해서도 번역가의 입장에서 본 번역전략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가 제안하는 오웰의 『동물농장』을 위한 일곱 가지 번역전

락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2012: 98-145).

첫째, 오웰은 가능한 앵글로색슨 계통의 토착어를 구사하려고 애썼는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도 이러한 의도를 그대로 살려 한자어는 라틴어나 고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영어와 같고 앵글로색슨 말은 순수 토박이 우리말과 같으므로 가능한 우리 토박이 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어휘뿐만 아니라 문장과 단락을 넘어 글 전체도 원문의 의도를 잘 살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원천 텍스트의 문장을 목표 텍스트에서도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고, 길어서 의미전달이 어려울 때에는 두 세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스타카토처럼 짧은 문장들은 한 문장으로 결합하여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문의 문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원문의 문장 단위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는 것이 좋다.

셋째, 영어의 앵글로색슨 말이 우리나라의 토박이말에 비유되었듯이, 한국어의 특징을 살려서 번역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바로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이다. 의성어, 의태어는 다른 어느 언어와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원문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다.

넷째, 한국어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주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영어에서는 ‘Did you have dinner?’와 같이 주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밥 먹었어?’ 라고 물으면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너는’ 이라는 주어를 넣으면 오히려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주어생략의 한국어의 특징을 잘 살려, 번역할 때 원문의 주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문장이 어색해지면 과감하게 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manor farm’과 같은 단어를 ‘메이너 농장’과 같이 원문 발음과도 다르게 완전히 다른 단어로 표기하는 오역을 범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위의 ‘manor farm’을 ‘장원농장’, ‘매너농장’과 같이 번역만 해 놓고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목표언어 독자는 이 단어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으므로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을 이용하여 좀 더 구체화되고 정확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은유나 직유 또는 우리가 글에서 흔히 보는 다른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토착어를 중시 여기는 오웰의 특성상 가급적 은유, 비유법보다

는 직설법으로 글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우선 조지 오웰의 두드러진 문체적 특성을 바탕으로 그의 문체가 분석대상인 네 편의 번역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본 후, 김옥동(2012)이 제시한 일곱 가지 번역전략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번역가들의 번역 전략도 함께 관찰해 보고자 한다.

### 3. 번역본 비교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번역본은 모두 네 편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종의 번역본 중에서 문학작품을 다수 번역한 전문번역가의 작품을 위주로 1990년대와 2000년대에서 각각 두 편을 선택하였다. 이들을 출판시기별로 정리하면 각각 최윤영(1994), 도정일(1998), 공경희(2005), 김옥동(2010)이며, 편의상 출간순서대로 TT1, TT2, TT3, TT4로 표기하기로 한다.

분석 범위는 각 텍스트의 1장으로 한정하고,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를 엑셀에 입력하여 대조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3.1. 조지 오웰의 문체

2장에서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오웰은 간결한 문장, 정확한 영어, 단순한 표현의 사용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오웰의 문체적 특성이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자.

##### 3.1.1. 통사적 간결함

『동물농장』은 전체적으로 한 문장의 길이는 다소 길어 보이지만, 한 문장이 구성하고 있는 문장단위는 접속사, 분사, 관계사 등을 이용한 짧은 구와 절의 형태로 되어 있다. 우리말은 영어와는 달리 짧은 구와 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텍스트의 구조를 한국어 번역본으로 그대로 옮길 경우 짧게 끊어지는 부분이 미약하고 복잡한 긴 문장으로 번역되어 오웰이 보여주는 그만의

문체적 특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의 간결한 문장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번역본에서는 쉼표, 마침표, ‘~는데, ~한 뒤, ~하고, ~지만’과 같은 연결어미 등을 이용하였는데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번역예시 1>

ST: He was twelve years old and had lately grown rather stout, but he was still a majestic looking pig, with a wise and benevolent appearance in spite of the fact that his tushes had never been cut.

TT1: 열두 살인 그는 최근 들어 굉장히 살이 쪼지만 당당한 풍채는 아직도 여전했다. 나서부터 한번도 자른 적이 없는 송곳니가 뺄어 있어도 그에게서는 현명하고 인자함이 엿보였다.

TT2: 그는 나이 12세로 최근 몸이 좀 불고, 이빨은 한번도 자른 적이 없지만 여전히 현명하고 자애롭고 위엄이 넘쳐 보였다.

TT3: 대장 영감은 열두 살로 최근에 몸이 비대해졌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했다. 송곳니를 자르지 않았는데도 현명하고 너그러워 보였다.

TT4: 올해 열두 살인 영감은 요즘 와서 몸집이 좀 불었지만 풍채는 여전히 당당했으며, 지금까지 송곳니를 자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현명하고 인자해 보였다.

위 <예시 1>에서 볼 수 있듯이 ST의 문장 길이는 다소 길어 보이지만 각각의 의미단위는 접속사, 분사, 전치사구를 이용하여 매우 간결하게 제시되고 있다. 번역본 역시 이러한 간결함을 살리기 위하여 TT1, TT3의 경우처럼 문장을 끊어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어주거나 ‘쪼지만’, ‘불고’, ‘비대해졌지만’, ‘없는데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연결어미를 사용하고, TT2, TT3, TT4에서와 같이 쉼표를 추가하여 의미단위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예시 2>

ST: With the ring of light from his lantern dancing from side to side, he



lurched across the yard, kicked off his boots at the back door, drew himself a last glass of beer from the barrel in the scullery, and made his way up to bed, where Mrs. Jones was already snoring.

TT1: 동그런 불빛이 새어나오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비틀비틀 마당을 가로지른 그는 뒷문에서 장화를 벗어던지고 난 다음 주방에 있는 맥주통에서 마지막으로 한 잔을 따라 쪽 들이마시고는 침실로 올라갔다. 마누라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다.

TT2: 그가 갈짓자 걸음으로 마당을 건너가는 동안 그의 손에 들린 등불의 등근 불빛도 좌우로 크게 출렁거렸다. 그는 본체 뒷문에서 장화를 발꿈치로 차 벗어던지고 부엌 술통에서 맥주 한 잔을 마지막으로 따라 들이키는 침대로 향했다. 침대에는 아내가 벌써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TT3: 그는 손전등을 여기저기 비추며 비틀비틀 마당을 걸었다. 뒷문에서 장화를 벗어던지고, 식기실에 있는 통에 든 맥주를 입가심으로 한 잔 마신 다음, 침대로 올라갔다. 존스부인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TT4: 등불에서 흘러나오는 동그란 불빛이 좌우로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갈 짓자 걸음걸이로 비틀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뒷문에서 장화를 걷어차듯 벗어던지고는, 식기실에 있는 맥주통에서 마지막으로 맥주 한 잔을 따라 들이킨 뒤 천천히 침대로 올라갔다. 침대 위에는 그의 아내가 벌써부터 코를 드르렁 골며 잠을 자고 있었다.

위 <예시 2>에서 한 문장으로 구성되었던 ST는 TT1에서 2문장으로, TT2, TT3, TT4에서는 각각 3문장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앞서의 예에서와 같이 연결어미를 사용함과 동시에 마침표, 쉼표 등을 이용하여 원문의 의미단위에 맞추어 번역문의 의미단위를 분절해 보여주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위의 두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ST는 마침표를 기준으로 한 한 문장의 길이는 길지만, 이를 구성하고 있는 의미단위는 접속사, 전치사, 관계사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네 편의 번역본에서도 각기 마침표, 쉼표, 연결어미 등을 이용하여 ST의 간결한 의미단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었다. 이는 번역가별로 구체적인 전략, 즉, 문장의 길이는 유지하되 연결어미를 이용하여 의미단위별로 분리해주거나, 쉼표를 이용하여 의미단위가 끊어짐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거나, 마침표를 이용하여 새로운 문장으로 처리하는 등 세부적인 전략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네 번역본 모두에서 ST의 간결한 문장구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3.1.2. 능동구문의 선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물농장』은 그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대체로 동물들이 주체, 즉 행위자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능동구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139문장으로 이루어진 1장에서 불과 일곱 번의 수동구문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소설의 주된 문장 형식은 능동구문이라 할 수 있다. 아래 <예시 3>의 경우와 같이 ST의 능동구문 형식은 번역문에서도 모두 능동구문 형식으로 번역되었다.

<번역예시 3>

ST: The hens perched themselves on the window-sills, the pigeons fluttered up to the rafters, the sheep and cows lay down behind the pigs and began to chew the cud.

TT1: 암탉들은 창턱에 해를 치고 앉고, 비둘기들은 서까래 쪽으로 날아갔으며, 양과 암소들은 돼지들 뒤에 드러누워 되새김질을 시작했다.

TT2: 암탉들은 창턱에 올라앉고 비둘기들은 서까래로 올라가고 양과 암소들은 돼지들 뒤쪽에 앉아 벌써 새김질을 시작한 참이었다.

TT3: 암탉들은 창틀에 앉았고, 비둘기들은 서까래에 올라앉았다. 양들과 젖소들은 돼지 뒤편에 자리를 잡더니 새김질을 하기 시작했다.

TT4: 암탉들은 창틀 위에 올라가 앉았고, 비둘기들은 푸드덕거리며 서까래 위에 앉았으며, 양과 암소들은 돼지 뒤편에 앉아서 새김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가하면, 1장에서 사용된 총 일곱 번의 수동구문은 번역본마다 번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것, 모두 능동구문으로 번역된 것, 능동과 수동구문이 혼용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번역예시 4>

ST: ... are forced to work to the last atom of our strength; and the very instant that our usefulness has come to an end we are slaughtered with hideous cruelty.

TT1: ... 힘이 다할 때까지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쓸모없게 되면 그 순간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TT2: ... 마지막 힘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일을 해야 하오. 그러다가 이제 아무 쓸모도 없다고 여겨지면 그날로 우리는 아주 참혹하게 도살당합니다.

TT3: ... 마지막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일을 해야 하오. 또 우리가 소용이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몹시 잔혹하게 도살당하오.

TT4: ... 마지막 힘까지 강제로 흡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쓸모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끔찍하고 잔인하게 도살을 당하지요.

위 <예시 4>에서 ST에 쓰인 수동구문 ‘we are slaughtered’는 네 번역본에서 모두 ‘~당하다’라는 동일한 수동표현으로 번역되었다. 이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수동구문과는 달리 행위자가 따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본에서도 모두 수동태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번역예시 5>

ST: Because nearly the whole of the produce of our labour is stolen from us by human beings.

TT1: 우리들이 노동해서 생산한 것을 인간들이 거의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TT2: 우리가 노동해서 생산한 것을 인간들이 몽땅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TT3: 그건 우리의 노동력으로 생산되는 거의 전부를 인간이 빼앗아가기 때문이오.

TT4: 그것은 우리가 힘들여 생산한 것을 인간이 거의 모두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 5>에서 ST의 수동태 구문인 ‘is stolen from us by human beings’는 네 번역본에서 모두 능동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명시적으로 언급된 행위자 ‘by human beings’가 ‘인간이, 인간들이’처럼 주어로 처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is stolen’은 ‘빼앗아가다, 도둑질해 가다’와 같은 능동태 문장으로 바뀌었다.

<번역예시 6>

ST: I know, as surely as I see this straw beneath my feet, that sooner or later justice will be done.

TT1: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내 발밑에 있는 짚더미를 보는 것

처럼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TT2: 하지만 머잖아 정의의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만은 지금 내가 발 밑의 지푸라기를 보듯 확실한 일이오.

TT3: 조만간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명약관화하게 알고 있소.

TT4: 내가 내 발밑에 있는 이 짚을 똑똑히 보고 있듯 머지않아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겁니다.

위 <예시 6>에서는 각 번역본마다 수동구문의 번역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TT2는 ST의 ‘justice’를 ‘정의의 날’로, ‘will be done’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의미의 능동형 문장으로 처리한 반면, 나머지 TT1, TT3, TT4는 ‘정의가 실현되다, 정의가 이루어지다’와 같은 수동태 문장으로 번역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웰의 『동물농장』은 능동태 문장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위의 <예시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어 번역본에서도 대체로 능동형식으로 처리되어 전반적으로 그의 문체를 잘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ST에서 오웰이 추구하는 문체적 특성에서 다소 벗어나는 일부 수동태 문장의 경우, 번역본마다 다소 달리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명시적인 행위자가 있을 때 이를 주어로 하여 능동형 문장을 선호하는 한국어의 특성, ‘정의의 날이 오다’, ‘정의가 이루어지다, 정의가 실현되다’에서처럼 목표언어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 3.1.3. 단순한 어휘 사용 및 꾸밈없는 표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물농장』에서 오웰은 두 개 이상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복잡한 구조는 피하고 하나의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는 단순하고 꾸밈없는 표현을 추구하였다. 1장 전체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 하나의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였으며, 두 개 이상의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모두 세 번 나타났다. 한국어 번역본에서 어휘 선택에는 번역본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아래의 예시에서처럼 각각의 번역본에서 단순한 수식구조는 가능한 그대로 번역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번역예시 7>

ST: At this moment there was a tremendous uproar.

TT1: 바로 이때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났다.

TT2: 연설이 이 대목에 이르자 우레 같은 함성이 일었다.

TT3: 이때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다.

TT4: 바로 이때 아주 큰 소동이 벌어졌다.

위의 <예시 7>에서는 ‘tremendous’라는 하나의 형용사가 ‘uproar’라는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는, 단순한 어휘 사용의 예를 잘 보여준다. 이때 번역본에서는 단어의 선택에 차이는 있지만, ST와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의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는 단순하고 꾸밈없는 번역방식을 취하였다.

아래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번역예시 8>

ST: Clover was a stout motherly mare approaching middle life, who had never quite got her figure back after her fourth foal.

TT1: 클로버는 중년이 다 된 살찌고 인자한 암말로 넷째 번 망아지를 낳고 나서부터는 전과 같이 날씬한 몸매로 되돌아가지 못했다.

TT2: 클로버는 이미 중년을 바라보는 똥똥한 어미말이었는데 네 번째 새끼를 낳은 뒤로는 영 옛날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TT3: 클로버는 중년에 접어든 살찐 암말로, 네 번째 망아지를 출산한 후 몸매를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TT4: 클로버는 이미 중년에 가까운 똥똥한 암말로, 네 번째 망아지를 낳은 뒤 아직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한 상태였다.

위 <예시 8>의 ST에서는 ‘mare’라는 하나의 명사를 ‘stout’, ‘motherly’의 형용사 두 개가 수식하고 있는 구조이다. TT1에서는 이를 ST와 동일한 구조로 ‘살찌고 인자한 암말’ 번역하였으나, TT2, TT3, TT4는 ‘motherly’의 의미는 생략하고 하나의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는 단순한 어휘의 형태로 번역하였다.

<번역예시 9>

ST: A white stripe down his nose gave him a somewhat stupid

appearance, and in fact...

TT1: 그러나 콧등에 난 흰 줄무늬는 어딘가 좀 모자라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TT2: 그가 좀 멍청해 보이는 것은 코 밑의 흰 줄 때문이었다. 사실...

TT3: 콧등에 흰 줄이 있어서 멍청해 보였고, 사실...

TT4: 코 밑에 흰 줄무늬가 하나 있어 어쩐지 미련스럽게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실제로...

위 <예시 9>의 ST에서는 ‘appearance’라는 명사를 ‘somewhat, stupid’라는 두 개의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다. TT1과 TT4는 ‘인상’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두 형용사를 모두 번역하였고, TT2는 ‘appearance’를 명시적으로 ‘인상’이라 번역하는 대신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두 형용사는 모두 의미를 살려 번역하였다. TT3의 경우에는 ‘멍청해 보였고’로 처리하여 간결한 번역방식을 취하였다.

<번역예시 10>

ST: At the last moment Mollie, the foolish, pretty white mare who drew Mr. Jones's trap, came mincing daintily in, chewing at a lump of sugar.

TT1: 바로 그 때 존스씨의 이륜마차를 끄는, 어리숙하면서도 예쁘장한 흰 암말 몰리가 설탕 덩어리를 씹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다.

TT2: 마지막 순간에 도착한 것은 존스 씨의 경마차를 끄는, 아리따지만 머리는 텅 빈 흰색 암말 몰리였다. 몰리는 각설탕 덩어리를 씹으며 아주 우아한 댕시로 걸어 들어왔다.

TT3: 마지막 순간에 예쁘고 멍청한 흰 암말 몰리가 들어왔다. 존스씨가 놓은 덩을 끌고 온 몰리는 점잔을 빼며 들어오더니 설탕 덩어리를 씹었다.

TT4: 마지막 순간에 존스 씨의 경마차를 끄는, 멍청하기는 하지만 얼굴이 잘생긴 흰 암말 몰리가 각설탕을 씹으며 여봐란 듯이 점잔빼며 사뿐사뿐 들어왔다.

위 <예시 10>은 ‘foolish, pretty, white’의 세 개 형용사가 ‘mare’라는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이다. 여기에서 이 세 개의 형용사는 수식을 받는 명사의 각기 다른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므로 그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번역본에서 생략하기 어려울 것이라 짐작된다. 구체적 어휘 선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네 편의 번역본에서 모두 세 개 형용사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예시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예시 8> 또는 <예시 9>의 경우처럼 맥락상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닌 수식어의 경우에는 일부 생략하여 번역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단순한 어휘를 추구하는 오웰의 문체적 특성이 번역본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예시 10>의 경우와 같이 명사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식어구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ST의 형용사 표현들이 TT에서도 생략 없이 그대로 번역되어 나타났다.

### 3.2. 김옥동(2012)의 번역전략에 기반한 번역본 비교

번역서 내의 역자 후기 등 결텍스트가 아닌 단행본에서 특정 작품의 번역 전략을 논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김옥동(2012)은 특히 흥미롭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가 제시한 일곱 가지 번역전략—순수 토박이어 사용, 원천 텍스트의 통사적 간결함 유지, 의성어·의태어 사용, 주어생략, 고유어 표기, 독자를 위한 정보제공, 비유적 표현 사용 자제—에 기반하여 각 번역본을 검토해 보았다.

첫 번째, 순수 토박이어 사용과 관련하여 김옥동에서는 오웰이 가능한 앵글로색슨 계통의 토착어를 구사하려고 애썼는데 이러한 의도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전략으로 한자어 사용을 지양하고 순수 토박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텍스트의 1장만을 한정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휘 차원에서는 네 편의 번역본에서 그다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TT4의 경우, ‘milk’를 ‘우유’ 대신 ‘젖’으로 번역한 외에 별다른 순수 토박이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앞서 오웰의 문체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물농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체적 특징 중 하나는 통사적 간결함이며, 이는 짧은 구와 절을 서로 연결하여 의미 구성단위를 가능한 짧게 유지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1장에서는 원천텍스트에서 총 139개의 문장이 사용되었다. 복잡한 정치적 내용을 재미있고 단순하게 표현한 원천텍스트의 특징을 살리고 이야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천텍스트에서의 문장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영어와 한국어의 통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문장 수에

만 초점을 두고 의미단위를 생각하지 않은 채 번역한다면 자칫 원천텍스트에서 추구한 간결한 의미구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간결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접속사, 분사, 관계사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간명하게 끊어 번역하는 것이 원문과 같은 호흡을 유지하는 데에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편의 번역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각 텍스트의 문장 수를 비교해 보았다. 아래는 각 번역본별 문장 수 비교 결과이다.

〈표 1〉 텍스트 별 문장 수 비교

텍스트	ST	TT1	TT2	TT3	TT4
문장수	139	149	156	162	166

흥미롭게도 텍스트 별 문장 수 비교에서는 번역 시기가 앞설수록 ST의 문장 수와 근접하게, 반대로 번역 시기가 뒤로 갈수록 의미단위로 끊어서 문장을 구성하여 문장 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번역일수록 ST의 문장 수에 구애받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통사적으로는 간결하지만 “접속사, 분사, 관계사로 연결되는” 긴 문장, 즉, 복합문을 주로 사용한 ST의 특성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ST에서는 단순한 통사구조를 통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되, 복합문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 정치적 우화의 문체 특성이라면, 의미단위로 문장을 끊어 새로운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번역전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김옥동은 영어의 특성상 원천텍스트에서는 의성어, 의태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한국어에서는 의성어, 의태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잘 발달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으므로 앵글로색슨어를 많이 사용하려 노력한 오웰의 문체 특성을 전달하는 데에 의성어, 의태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네 편의 번역본을 비교해본 결과, TT4에서 특히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번역예시 11>

ST: ... Mrs. Jones was already snoring.

TT1/2/3: 코를 골고 있었다 /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TT4: 코를 드르렁 골며 잠을 자고 있었다.

<번역예시 12>

ST: Before long the other animals began to arrive and ~

TT1/2/3: 하나씩 모여들어 / 하나들 모여들어 / 도착한 다른 동물들은

TT4: 곧이어 다른 동물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번역예시 13>

ST: ... the pigeons fluttered up to the rafters,

TT1/2/3: 서까래 쪽으로 날아갔으며 / 비둘기들은 서까래로 올라가고 / 서까래에 올라앉았다

TT4: 비둘기들은 푸드덕거리며 서까래 위에 앉았으며,

<번역예시 14>

ST: ... the ducklings nestled down inside it...

TT1/2/3: 그 안쪽에 모여들더니 / 그 안에 들어가 / 그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TT4: 새끼 오리들은 그 속에 웅기웅기 앉아

위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TT1, TT2, TT3에서는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데 반하여 TT4에서는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여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표현상의 자연스러움을 꾀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이 동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움직임이나 상황의 묘사에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는 것이 이야기의 생동감을 높이는 데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리라 판단된다.

네 번째는 주어 생략의 전략으로, 한국어에서는 주어를 매번 사용하지 않아도 그 대상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주어를 쓰지 않을 때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러 번역에서 이국화 현상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번역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곳에서는 주어를 생략하여야

하며, 이국화 번역방법보다는 자국화 번역방법이 더 낫다(김옥동 2012: 137).

실제 번역본에서는 주어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편의 번역본을 살펴본 결과, 각 번역텍스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원문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T4의 경우는 일부에서 ‘we’, ‘he’와 같은 대명사 주어를 생략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번역예시 15>

ST: He seized the gun which always stood in a corner of his bedroom,...

TT1: 그는 항상 침실 구석에 세워두는 총을 들고 나와...

TT2: 그는 침실 한 구석에 늘 세워두는 총을 집어 들어...

TT3: 그는 늘 침실 구석에 세워두는 총을 들고...

TT4: 그리고    언제나 침실 한 구석에 세워두는 소총을 들고 나와...

이 문장의 바로 앞 문장에서 ‘Mr Jones (존스 씨)’가 이미 주어로 언급이 된 상태이며, 따라서 ‘He’는 바로 앞에 언급된 ‘존스 씨’임이 명확하므로 TT4에서는 주어 생략의 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황상 지시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명사 주어의 경우, 일일이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고유어의 표기로, 김옥동은 『동물농장』의 역자 후기(2010)에서 ‘manor farm’을 원문발음과 다르게 ‘메이너 농장’이라고 번역할 경우 오역이라고 하였으며, 번역전략에 있어서도 고유어의 정확한 표기를 그 중 하나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네 편의 번역본에서는 TT1에서는 ‘Willingdon Beauty’를 ‘윌링턴 뷰티’로, 원문발음과 다소 다르게 표기한 사례가 있었다. TT2에서는 ‘Manor farm’을 ‘메이너 농장’으로, ‘Moses’와 ‘Mr.Jones’는 각각 ‘모지즈’, ‘존스 씨’로 원문 발음과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이때, ‘Moses’를 ‘모지즈’로 번역할 경우, 성경의 ‘모세’를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 즉 상호텍스트성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고유어의 정확한 표기가 필요하다. 또한, ‘Manor’의 경우, 고유어의 정확한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원, 영지’에서 유래된 의미가 독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TT3와 TT4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비교범위가 넓지 않아 좀 더 명확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 번째는 독자를 위한 정보 제공전략으로, 원천텍스트 독자와 번역텍스트 독자들은 서로의 문화와 환경이 다르므로 텍스트 세계에서 다루어지는 사실들에 대한 이해도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번역가가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다면 목표텍스트 독자들은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번역가가 주석을 사용하거나 또는 텍스트 내에 역자 주 등과 같은 방식으로 부연설명을 해 준다면, 목표언어 독자들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원문 작가의 의도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물농장』의 경우처럼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부연설명의 제공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편의 번역본을 비교해 본 결과, TT1, TT2, TT3는 주석이나 부연설명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TT4에서는 주석을 활용하여 부연설명을 제공하고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번역예시 16>

ST: Mr.Jones, of the Manor Farm, had locked the hen-houses for the night,...

TT4: 그날 밤 ‘장원농장’의 존스 씨는 밤에 닭장 문을 걸어 잠갔지만,...

주석: 장원농장이란 중세의 귀족 소유지나 영지에 속한 농장을 말한다. 이 작품에서는 제정 러시아를 상징적으로 가리킨다. 이 농장의 주인 존스 씨는 1917년 2월 혁명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는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를 가리킨다. 니콜라스 2세와 그의 가족은 시베리아의 톨볼스크로 유배되었고, 10월 혁명으로 카렌스키 정부도 무너진 뒤에는 시베리아의 또 다른 도시 에카테린부르크로 이송되었다. 1918년 그와 그의 가족은 시베리아에서 처형되었다. 한국어 번역본은 대개 ‘장원농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메이너 농장’이니 ‘메이노 농장’이니 하고 고유명사로 번역했다.

<번역예시 17>

ST: Boxer was an enormous beast, nearly eighteen hands high,...

TT4: 몸집이 엄청난 복서는 키가 열여덟 뺨이나 되며...

주석: 말의 키는 흔히 ‘뺨’ 단위로 재는데 한 뺨은 4인치이다. 말은 보통 어깨 높이까지 쥔다. 그러므로 복서의 키는 72센치(약 1.8미터)이다.

이처럼 TT4에서는 독자들의 텍스트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주석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물농장』은 동물들에 빗대어 당시 러시아의 정치상황을 풍자하고 있는 우화소설이므로, 특히 그 배경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가 작품의 이해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작품의 풍자적 요소를 따라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유용한 번역 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일곱 번째는 비유적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는 전략으로, 앞서 오웰의 문체적 특징을 살펴보면서 언급하였듯이 오웰은 비유법의 사용을 지양하였다. 그는 비유나 은유는 글이 원래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번역에서도 가능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천텍스트의 의도를 살리는 전략이 될 것이다. 네 편의 텍스트를 비교해 본 결과 모두 원천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원천텍스트의 명료하고 직설적인 어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교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으므로 좀 더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결론

오웰은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와 그가 추구하는 좋은 글쓰기 방향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파울러 등에서 다루어지듯 다른 문체 연구가들에 의해서도 그의 글쓰기 방식이 논의되고 있을 만큼 그만의 두드러진 문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번역에 있어서도 그의 문체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번역전략에 대해 논의할 때, 번역가가 역자후기를 통해

자신의 접근법을 기술하거나, 혹은 번역 연구자들이 이미 생산된 번역물을 놓고 메타적 논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된 김옥동(2012)은 단행본을 통해 『동물농장』의 전반적인 배경, 오웰의 문체적 특성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 위한 번역전략을 메타담론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오웰의 문체적 특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특성이 네 편의 번역본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알아보았다. 또한, 김옥동에서 제시된 일곱 가지의 번역전략을 바탕으로 번역본 네 편을 비교해보았다. 비교의 범위를 1장으로만 한정하였으므로, 비교 결과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오웰의 문체 중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 통사적 간결함이나 현실 풍자적 요소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제시된 번역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보일 수 있었다.

비교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사적 간결함을 살펴보기 위한 문장 수 비교에서 네 편의 번역본 중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TT3와 TT4는 접속사, 분사, 관계사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간명하게 끊어 문장 단락을 이룸으로써 ST의 의미단위 호흡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착어 사용 특성을 살리는 측면에 있어서는 TT4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는 전략이 표현상의 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어와 의태어의 활용은 특히 동물이 주요 등장 인물이 되어 이끌어가는 이 작품의 이야기 흐름에 생동감을 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주석을 통한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TT4에서 매우 상세한 배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풍자한 『동물농장』 특유의 이야기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 판단된다. 극히 한정적인 비교 범위로 인하여 주어의 생략이라든가, 고유어 표기, 비유적 표현의 자제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 텍스트 전반으로 비교범위를 확대하여 각각의 번역전략이 구현되는 방식을 살펴본다면 번역전략의 구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될 것이라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공경희 (2005) 『동물농장』, 책 만드는 집: 서울.
- 김육동 (2010) 『동물농장』, 비채: 서울.
- \_\_\_\_\_ (2012) 『동물농장을 다시 읽다』, 이숲에올빼미: 서울.
- 김재환 (1999) 『우화소설의 세계』, 박이정: 서울.
- 도정일 (1998) 『동물농장』, 민음사: 서울.
- 박경서 (1998)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타난 사회주의적 전망」, 『신영어영문학』 10권: 103-124.
- 손지봉 (2008) 「번역에서 글쓰기의 위상과 전략」, 『번역학연구』 9(3): 73-92.
- 안미영 (2012) 「해방 이후 전체주의와 조지오웰 소설의 오독」, 『민족문학사연구』 49권: 339-374.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 사업단 (2007)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2』, 창비: 서울.
- 최윤영 (1994) 『동물농장』, 해원출판사: 서울.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Fowler, Roger (1995) *The Language of George Orwell*, Hampshire & London, Macmillan.
- Leech, Geoffrey (2008) *Language in Literature: Style and Foreground*, London, Longman.
- Orwell, George (1946) 'Why I Write', first published in London: Gangrel.  
[http://orwell.ru/library/essays/wiw/english/e\\_wiw](http://orwell.ru/library/essays/wiw/english/e_wiw)
- Orwell, George (1946)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  
<https://www.mtholyoke.edu/acad/intrel/orwell46.htm>
- Orwell, George (1984) *Animal Farm*, USA, Penguin.

[Abstract]

**A Comparison of Translations of *Animal Farm*:**

**Focusing on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Orwell and Translation Strategies**

Kim, Soonyoung & Park, So-Young  
(Dongguk University-Seoul)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drawing upon the seven translation strategies proposed in Kim(2012), how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Orwell's *Animal Farm* were addressed by translators. First, it reviewed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Orwell based on his own essay on writing, and related previous studies by other scholars. It then conducted comparisons of four translations, two published before 2000 and two after 2000. Orwell, in his essay,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 (1946), overtly stated five rules of writing and they are: (i) Never use a metaphor, simile, or other figure of speech which you are used to seeing in print; (ii) Never use a long word where a short one will do; (iii) If it is possible to cut a word out, always cut it out; (iv) Never use the passive where you can use the active; (v) Never use a foreign phrase, a scientific word, or a jargon word if you can think of an everyday English equivalent; and, perhaps Orwell's most important rule, (vi) Break any of these rules sooner than say anything outright barbarous. Kim translated Orwell's six rules into Korean translation strategies which he deemed equivalent. This study compared the applications of Orwell's rules in English with their translations into Korean by the four translators of *Animal Farm*, using Kim's translated version of Orwell's writing strategies.

▶ Key Words: fable novel, stylistic characteristics, translation strategies

김순영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영어통번역학과

imksy927@daum.net

관심 분야: 문학번역, 번역전략

박소영

동국대학교 대학원

soyaholic@daum.net

관심 분야: 우화소설, 문학번역

논문투고일: 2014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14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4일